

# 제 五 장 이 린 양 의 승 리

## 봉 한 책

「내가 보매 보좌에 안지신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박그로 썼는데 닐굽인으로 봉하였는지라 또 보매 힘잇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불리가르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슬우에와 씨우에와 밋 씨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이가 업는지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자가 업기로 내가 크게 우니 장로중에 하나이 내게 말하야 가르대 울지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밋서 이기었으니 능히 이 책과 그 닐굽인을 떼시리라 하거늘 내가 보니 보좌와 밋 네 령불과 또 여러 장로가운데 어린양이 섰는데 일죽 죽임을 당한것 가른지라 닐굽수와 닐굽눈이 있으매 이는 곳 하나님의 닐굽신이니 온 세상에 보범을 입은자라 어린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안지신이의 오른손에 잇는 책을 파드시니라」

「요한」은 오이러 계속하야 하늘의 열린문을 통하야 하나님의 보좌를 주의하야 보았다. 보좌에 안지신 성부의 손에 한책이 있으니 안박그로 썼는데 닐굽인으로 봉하였다. 그 책은 오늘날의 책들과 갓지아니하고 두루마리로 생긴것인데 안박그로 글을 기록한



별 목 인 으 로 부 한 책

그가 『사단』을 이기셨으니 능히 그 책을 여실수 있는 것이다. 그 어린양이 날  
 꿈 썰을 가졌으니 이는 그 완전한 능력을 표상함이오 그 어린양이 날꿈은  
 이 있으니 이는 온세상에 보냄을 입은 하나님의 날꿈신을 표상한 것이다. 예  
 수께서 그러한 눈을 가지셨으니 그가 당신의 시험받는자녀를 하나라도 눈길  
 리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린양의 계명과 과의 날림

「책을 바드시매 네 령들과 二十四장로가 다 어린양 압해 업드려 각각  
 거문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거 향을 가득히 담았으니 이 향은 곳성  
 도의 기도라 새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찢기  
 에 합당하시도다 일즉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지방과 백성과 나라가  
 운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저희로 우리 하나님압  
 해서 나랏를 세우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싸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드르매 보좌와 령들과 장로겨례 두루 여러 천사  
 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을 내어가르대 죽  
 음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요한 것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  
 송을 바드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드르니 하늘우에와 싸우에  
 와 싸아래와 바다우에와 또 그 모든가운대 만물이 가르대 보좌에 안지신

것이였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가지셨는데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대 「누가 책  
 을 펴며 그 인을 찢기에 합당하냐」 하엿다. 이 책을 개봉하야 그 내용을 읽을만한자는  
 어쩔자인고하니 곳 그 책에 기록된 『사단』의 악한 줄계를 능히 깨드릴수 있는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일을 능히 할수있는자가 누구이나 보좌압해 섰는 령들들이나 二十  
 四장로이나 혹은 천사들이나 「하늘우에와 싸우에와 밋 싸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  
 나할이가 업섯다」

그러므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찢기에 합당하냐」 할때에 아모도 대답한이가 업  
 손 것이다. 『요한』은 이에 심히 통곡하엿다. 그가 운것은 그 책의 무서운 내용을 능  
 히 알아내어 그것을 대적할자가 입술진대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할것을 안싸담  
 이다. 『다니엘』선지자로 말하야도 바로 이와가튼 광경을 당하야 심히 번민한것이니 「다  
 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당할 그 무서운 광경을 보고 괴절하야 수일을 알키싸지하엿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오래올도록 바려두시지 아니하엿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  
 하기를 「을지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밧서 이기었으니 능히 이 책과  
 그 날꿈인을 찢시라라」 하엿다. 이에 『요한』이 그 눈물어린 눈으로 쳐다보니 네 령들  
 파 여러 장로가운대 일즉 죽임을 당한것가튼 어린양의 서서 잇엿다. 그는 마치 당장  
 회생을 당하려는드시 서서 잇엿다. 그는 곳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시니 그가 당신의 생  
 평을 바리사 그 인들을 찢시고 『사단』을 정복하사 인들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시엿다.

이다。대개 천사들은 죄를 지어보지못하였스매 구속의 찬송을 부를수없는것이다。그러나 천만천사들이 이 구속의 새노래를 듣고 마음에 기쁨을 이기지못하야 다른노래로 화답하였다。그 천사들은 『루스벨』이 하늘에서 패하는것을 보았으며 저이의 사랑관이신 『미가엘』이 『루스벨』의 권세를 피하고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차지하는것을 보았으니 이제 저희는 그 주재 찬송을 돌리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요한것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바 드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늘우애와 석우애와 석아래와 바다우애와 또 그 모든가운데 만물이」찬송을 돌러가르대

「보좌에 안지신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니 네 령들은 아멘하고 二十四장로는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니 네 령들은 이 가르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께서 아바지께 나아가 그의 오른손에서 인봉한책을 바드셨다。『내령들과 二十四장로는 다 어린양에게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 향을 가득히 담았으니』이 향은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바치는 성도의 기도를 표상함이다。성도의 참된 기도 곧 불리키적 기도는 하나라도 상달되지 아니하는것이 없다。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곳 아니하시는듯 할지라도 귀한 향과 가쁜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고 말것이다。네 령들과 二十四장로는 어린양에게 엎대어 새노래를 돌러가르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즉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지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씨에서 왕노릇하리라」

하였다。이 노래는 구속바드자들이 부르는 새노래이니 천사도 부르지못하는 구속의노래



누」대르가리블 로으성음르 가사천한  
「나하당합 여기데 늘인고 며려 늘책 가